

# 도 넘은 도덕 불감...광주 기초의원 왜 이러나

### 북구의원 배우자·선배 업체 일감 몰아주고 이권 챙기기 서구의장은 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 개인 생색내기

기초의원 의원들의 자질·도덕성·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제 것인 양 생색을 내고, 법에 어긋나는데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구청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물에 대한 검증없는 선거 구도로 빚어진 민주당 ‘일당독식’의 폐해도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경쟁과 감시가 없는 의회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향 선배 기업의 구청 사업 일감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해당 기업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 의원은 해당 선배 업체를 홍보한다며 북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공서까지 찾아 다니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배 회사 이사 직함의 명함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 의원은 영업 활동을 인정하고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구의회는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여는 데 미적대면서 동

료 의원을 감싸려 한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각 구의회마다 공사에 눈독을 들이는 의원들이 있는데, 계약 금액이 큰 탓에 법망을 피하려 다양한 업체의 명함을 가져와 공무원들에게 내밀거나 은밀하게 업체 대표를 공무원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따내고 있어, 불법의 성격상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석(무소속·라선지구) 서구의회의장은 올해 의회 예산 600만원으로 구입한 홍보기념품(넥타이) 200개 중 86%인 166개를 가져가 임의로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회가 의회 방문객이나 타 지역 의회 방문 행사 때 기념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기념품을 자신의 지역

구 행사 등에서 제 것인양 사용한 것이다.

강 의원은 또 4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찻잔 세트 기념품 100개 중 60개도 제멋대로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부의장이다, 서구의회 의장을 맡다보니 전국을 돌며 만난 관계자들에게 서구를 홍보할 목적으로 사용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서구를 대표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구의회도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의 개최를 보류하기로 해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더위 위은 시원한 망종한 습도 높은 날씨를 보인 17일 광주시 동구 AC내 아시아문화광장 나무 숲 아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오늘밤까지 최고 100mm 많은 비

18일 밤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17일 밤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돼 18일 밤까지 계속 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특히 저기압 중심에 가까워지는 18일 아침부터 낮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강수량은 30~80mm이며, 남해안 등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앞으로 내리 는 비로 인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및 축 대 붕괴가 우려되고,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조선대, 첨단에너지공학·인공지능공학과 신설

학과당 50명씩 100명 모집

조선대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첨단분야 학과인 첨단에너지공학과와 인공지능공학과를 신설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16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장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대는 미래 핵심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학과인 ▲첨단에너지공학과(공과대학) ▲인공지능공학과(IT융합대학) 등 2개의 신설학과(부)를 건의했고, 교육부 심사를 거쳐 최근 승인받았다. 각 학과당 정원은 50명이며, 대학 정원에서는 총 100명의 증원된다.

첨단에너지공학과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소, 지열, 풍력, 바이오, 폐기물)와 고부가가치의 미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장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한다고 발표했다.

조선대는 미래 핵심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학과인 ▲첨단에너지공학과(공과대학) ▲인공지능공학과(IT융합대학) 등 2개의 신설학과(부)를 건의했고, 교육부 심사를 거쳐 최근 승인받았다. 각 학과당 정원은 50명이며, 대학 정원에서는 총 100명의 증원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병원, 5년 연속 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전남대병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를 질하는 병원으로 평가 받았다.

더불어 화순전남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도 각각 1등급을 획득했다.

전남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간 실시한 5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 점수 90.2점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치료기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 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번 평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흡입기관 질환제 처방 환자비율·지속방문 환자비율 등에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득점을 획득하는 등 전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대학들 고3 입시 '코로나 구제안' 제각각...학교현장 혼란

### 출결·비교과 부담 대폭 줄여 서울지역 대학들 변경안 발표

'코로나19'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출결·수상경력 등이 예년과 달라지자 대학들이 잇따라 올해 대입 전형 일부 변경안을 내놓고 있지만 구제안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형평성 논란마저 있어 학교 현장이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

오는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앞서 최근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이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고3 수험생 구제를 명분으로 입시계획 변경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경희대와 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이 발표한 입시 변경안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핵심인 봉사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반영을 제외(최소화)하는 등 2020학년도 1학기의 출결이나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면접부담이 큰 상황을 감안해 올해 면접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9일 주요 사립대 중 처음으로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고려대는 지난 12일 면접을 비대면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도 같은 날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기존 2등급 이내)로 하향하고, 정시에서는 출결 및 봉사활동 등의 영역에서 감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고3 수험생 구제책이 잇따르고, 교육부는 7월 중에 대입 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대학들은 아직까지 변경안

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그렇기 않아도 코로나19에 적응하기 바빴던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는 개별 대학마다 다른 입학요강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 지역 한 고3 담임교사는 "서울지역 대학들의 입시계획 변경안을 보면 어떻게 바뀐 것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기 어렵다"며 "학부모와 고3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평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교육청 내년 개교 대안학교 교명 온라인 설문조사

전남교육청은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공립 대안학교 교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산들누리학교 ▲아람숲(고등)학교 ▲송정술나래학교 ▲아울숲(고등)학교 ▲송강(고등)학교 등 5편을 놓고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 교육청은 ▲스스로 서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꿈꾸는 교육공동체(교육 비전) ▲전남교육 철학(인간, 미래, 민주, 혁신)을 실천하는 학교 ▲아름다운 숲과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담은 학교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친근하고 참신한 학교의 의미를 담도록 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가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최종 선정된 교명을 이달 말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